

[참조1]

청구인 발언

●청구인 발언 1. 이동현 (청구인 태아 딱따구리·6세 어린이 엄마)

저는 임신 20주차 된 산모입니다. 앞으로 20주가 더 지나면 출산하게 될 겁니다. 아기의 태명은 딱따구리라고 정했습니다. 숲 속에 사는 딱따구리가 참나무 구멍에서 부화해 자라듯이 아기집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 딱따구리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합니다.

딱따구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랫배로 아기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아기가 딸꾹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태아는 숨을 쉴 필요가 없지만 아기집 속에서 양수를 삼켰다 뱉었다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고 그러다 딸꾹질을 한다고 합니다. 딸꾹질하는 태동을 느낄 때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딱따구리는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1그램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기후위기와 재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물종 멸종, 물 부족, 폭우, 홍수, 가뭄, 식량위기, 전염병 증가, 영유아 건강 악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후재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딱따구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들의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청구인 발언 2. 한제아 청구인 (10세, 서울 흑석초 4학년)

저는 흑석초 4학년 한제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 애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살아왔던 동물들은 인간 때문에 벌써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청구인 발언 3.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5살 어린이 엄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입니다.

단체 관련 소식들을 SNS 계정에 알리던 어느 날,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다보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분명 문제가 많다 느꼈고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된 취지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이 아니기에 먼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고 참여의사를 묻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환경 관련 책들을 꺼내들고 아이와 함께 기후 위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 그리고 그로인해 숨쉬기조차 답답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 찬 하늘.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고, 갈 곳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서 사라져가고 괴로워하는 동물들. 만 5세 아이의 눈에도 아픈 지구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위태롭고 심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매연을 뿜어내는 기름차가 싫다, 전기차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게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기후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흔쾌히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

를 밝혔고, 그렇게 저희 아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마치 한몸처럼 익숙해진 지금. 코로나가 없던 시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는 했던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종종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창기 시절, 아이와 함께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만 갇혀있던 때에는 그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연히 아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아이가 마스크 없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곤 했던 날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들로 마스크도 쓰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함께 집안에 갇혀있는 게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하늘대신 늘 뿌옇고 답답한 하늘을 보아야만 했고, 집안에는 늘 공기청정기가 틀어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수치에 촉각을 세우며 지금은 환기를 시켜도 될지, 오늘은 집 앞 공원이라도 잠시 다녀와도 될지 전전긍긍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기후 위기는 먼 북극에 있는 북극곰만의 일이라거나 먼 미래세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나의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해야 하는 노력과 역할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대해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그로인해 하루아침에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러한 행동 하나가 마중물이 되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청구인 발언 4. 한영섭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청구인 아빠)

●청구인 발언 5.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서태웅(1세)·서다미(3세)·서지효(6세) 아빠)

●청구인 발언 6.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이은유(5살) 엄마)
보석지구지킴이 이은유 엄마 권영은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소송에 참여한 이은유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쓰레기를 줍고, 안 쓰는 장난감과 옷을 나눕니다. 밥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은유와 아이들은 지구가 아프다며, 지구를 걱정합니다. 은유에게 오늘의 기후위기 소송을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어른들이 지구를 덜 아프게 하자는 약속을 조금만 했다고요. 지구를 지키는데는 게으르고, 아프게 하는 데는 바쁜 어른과 기업, 정부!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지구를 지키는데 좀 더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합니다.

●연대 발언 1. 김예원 공동대표 (녹색당)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에 '학교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전 세계에서 '기후 파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기기후소송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구인 분들의 존재와 행동도 그레타 툰베리의 '학교 파업'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마스크를 벗는 위험에 대해 인지해야만 하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또 이에 양육자들이 돌봄 노동을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당은 눈앞에 다가온 환경위기로 부터 우리가 살아갈 하나 뿐인 별,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연대 발언 2. 박경희 상무 (두레생협연합회)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더군다나 미래에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암울한 미래를 남겨주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기기후소송에 함께 합니다.

●연대 발언 3. 민윤혜경 운영위원 (60+기후행동)

우리 아기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0+기후행동 운영위의 일원으로서 아기기후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사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하여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저 지구가 큰 일 났구나, 걱정하며 전기 코드를 뽑아 놓는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우리 경은 에밀리아는 너무 일찍 태어나고, 오랜 기간 스탠포드 어린이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지내며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견뎌내고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아기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아기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살아갈 지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기후위기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본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난 자연은 무서운 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회는, 국가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 뿐인 지구를 이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다지요. 이 규정이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탄소를 줄이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는지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말이 눈속임 같기만 한데 맞는지요?

경은이 할머니는 이 규정을 이해를 할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때가 앞으로 남은 날들 중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구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 할 테니, 국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맑은 공기, 파란 하늘, 푸르른 숲, 물고기 가득 뛰노는 강과 바다를 우리 아기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연대 발언 4. 강은빈 공동대표 (청년기후긴급행동)